

#독서록 #소설

- 나는 소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드라마도. 왜냐면 내 삶과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주로 하니까. 몰입하고 싶어도 하기가 힘들다.
- 그런데 모순은, 이름은 안진진씨. 나와 비슷?한 나이의 비슷한 고민을 하는 조금 다른 사연 있는, 저와 크게 다르지 않게 느껴지는 주인공이 나와서 책이 잘 읽혔다.
- 이 책에서는 캐릭터들이 딱 두분류로 나뉜다. 현실파와 낭만파.
 - 엄마-아빠 / 이모부-이모 / 진진-진모 남매 / 주혁-주리 남매 / 나영규-김장우
 -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진진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은지?

생의 외침

- 12p 약간 지나치게 해석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도 나라는 인간은 평생 자신을 부정하며 살아가야 할 운명인 것이었다.....
 - 안진진씨가 자신의 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 15p 솔직히 말해서 내가 요즘 들어 가장 많이 우울해 하는 것은 내 인생에 망감이 없다는 것이다. 내 삶의 부피는 너무 얇다. 겨자씨 한 알 심을 만한 깊이도 없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 이렇게 살아선 안된다는 처절한 외침으로 글을 시작한다. 매너리즘에 자주 빠지는 나도 각성해야 한다며 삶의 큰 파도 없이 가는 것에 불만을 느낄 때가 있다. 이런 장면도 내 마음같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거짓말들

- "참 진" 자를 두번 쓰는 안진진씨. 웃긴건 바로 다음장이 거짓말들을 늘어놓는 내용들이다.
- 우연히도 상황은 만우절이고, 레스토랑에서 우연히 김장우를 만났고 부자 이모를 엄마라고 속였다.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우연.

사람이 있는 풍경

- 동생 안진모의 방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여성편력이 있는 진모의 비둘기 같은 새 여자에 대해 말한다. 말만하면 다 알만한 재벌집 회장이 먼 친척... 그 여자가 선택하는 것은 조폭같은 남자. 그래서 대부나 모래시계같은 드라마를 본다.
- 엄마는 지치지 않는 활력을 가지고 있다
- 두 남자를 두고 어떤 사람을 만날지 시험하기로 한다. 나영규에게 먼저 전화가 왔다. 나영규는 매사에 철두철미한 계획을 가진 사람이다. 그와 동시에 웃음이 많아 같이 웃지 않기 어려운 사람.
 - 그렇지만 같이 있을때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지 너무 뻘해 지루한 사람
- 5분뒤에 김장우에게 전화가 온다. 선약이 있다며 진진은 거절하고, 나영규와 시간을 보낸 뒤 전화를 건다. 장우는 남도로 떠난다는 음성만 남긴 채였다.

슬픈 일몰의 아버지

- 아버지는 결혼한지 딱 두달만에 술을 먹고 어머니에게 잡채 접시를 던진다.
- 어머니는 그길로 친정에 가 한달 내내 있다가, 날아오는 잡채접시만 봤을 뿐 큰일은 없었다며 가족들과 남편의 회유로 집에 돌아온다.
- 그러고는 술만 마시면 무언가 던지는것이 일상이 된다. 아버지는 그러면서도 괴로워한다. 한순간 좋은 사람이었다가도 나쁜사람이 되었다.
- 이후 어머니가 양말장사를 시작하면서 돈을 뺏어가는 건달이 되었다. 집에 들어오는 날은 줄어들며 종국에는 몇년간 오지않았다.

희미한 사랑의 그림자

- 나영규가 늘 전화를 먼저 걸었기 때문에 김장우에게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한다. 나영규와 다녀왔던 교외 한적한 레스토랑과 카페를 가서 그의 형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다. 그는 가난하고 그런 것을 숨기지 못 하는 사람이었다. 산에 있는 들꽃을 좋아하고 그 작은 들꽃을 보고 감동하는 사람이었다.
 - 처음 만나 반 하게 된 계기는 안 진진이 일하던 레스토랑에서 김 장우가 돈을 다 못 낸 상황에서 안 진진이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때 주고받은 이야기.

- 114 페이지 내 이름은 안 진 진 할 때 그리고 조용히 안진진을 찾으세요. 라고 말할 때 갑자기 그런 예감이 들었지 앞으로 아주 오랫동안 조용히 안 진진이 라는 이름을 부르겠구나 하는 예감 나한테 그런 느낌을 준 여자는 처음이었거든 착하고 착한 우리 안 진 진.

오래전 그 십분의 의미

- 이모네 집에 초대 된 가족들. 한 날 1시에 결혼을 시키겠다 넌 외할아버지 의 말대로 소개를 받게 되었다
- 첫 번째 소개는 언니 엄마가 두 번째 소개는 동생인 이모가 받게 되었다. 둘은 고작 10분 차이로 태어났는데.
- 어머니가 결혼한 아버지는 주폭을 일삼는 사람이었고 이모가 결혼한 이모부는 마치 기차와 같이 정확한 일정에 정확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맞게 자식들도 이모의 자식들은 마치 이모부처럼 자란 모습을 보인다.

불행의 과장법

157p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에서 솔직한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 진모의 비둘기가 주먹 깨나 쓰는 놈에게 떠났다. 진모는 그 사람을 죽일듯 패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으며 어머니는 자신의 불행을 과장하며 어찌저찌 해결해나간다
- 그 사이 나영규의 청혼을 받는다. 그의 인생 계획표 안에 29살 생일 (8월 27일)에 청혼하고 30이 되기전 결혼하겠다는 꿈을 간 사람이었다. 진진은 그의 인생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이 이제는 머릿속에 그려진다. 어디부터 계획된 것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착한 주리

178p 그건 옳지 못한 거야. 라는 규리의 관용구. 줄이는 바로 그 관용구 밑에서 숨어서 더 이상은 세상 속으로 나오지 않을 모양이었다.
- 이모의 부추김으로 주리는 진진이의 집에 방문했다. 결혼은 인생의 사업이라는 진진의 말에 주리가 그건 옳지 않다는 말을 되풀이한다. 주리는 결혼이 순결한 사랑과 사랑이 만나는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이라고, 꽃밭에서만 커온 사람처럼 말한다.

선음사 도솔암 가는 길에

188p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은 말이 아니었다. 상처는 상처로 위로해야 가장 효험이 있는 법이었다. 당 신이 겪고 있는 아픔은 그것인가, 자, 여기 나도 비슷한 아픔을 겪었다, 어찌면 내 것이 당신 것보다 더 큰 아픔일지도 모르겠다, 내 불행에 비하면 당신은 그나마 천만다행이 아닌가.....
- 김장우와 둘이 여행을 가기로 했다. 이번엔 안진진이 추진해서 가게 되었고 평소 준비도 않던 김장우가 선음사 도솔암으로 가자고 한다.
- 나영규에게 느껴지지 않던 감정. 김장우와 함께 있으면서 사랑을 느끼게 된 안진진은 오히려 황폐한 느낌을 느낀다.
- 그래서 술을 왕창 마시고는 아버지와 같은 술주사를 부린다.

사랑에 관한 세 가지 메모

209, 210

- 전화에 자유롭지 못한 나, 유행가에 민감한 나, 거울속의 . 내얼굴을 오래 들여다보는 나...

사랑에 관한 네번째 메모

218p 나는 이것으로 사랑을 가려냈다. 사랑은 그 혹은 그녀에게 보다 나은 '나'를 보여주고 싶다는 욕망의 발현으로 시작된다. '있는 그대로의 나'보다 '이랬으면 좋았 을 나'로 스스로를 향상시키는 노력과 함께 사랑은 시작된다. 술 직함보다 더 사랑에 위험한 극약은 없다. 죽는 날까지 사랑이 지 속된다면 죽는 날까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절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지 못하며 살게 될 것이다. 사랑은 나를 미화시 키고 나를 왜곡시킨다. 사랑은 거짓말의 유혹을 극대화시키는 감 정이다.

참을 수 없는, 너무나 참을 수 없는

232p 어쩌면 나는 이모의 넘쳐나는 낭만성의 동경을 은근히 비난하는 쪽을 더 쉽게 선택하는 부류의 인간일지도 모르겠다. 이모부 같은 사람을 비난 하는 것보다는 이모의 낭만성을 나무라는 것이 내게는 훨씬 쉽다.

그러나 내 어머니보다 이모를 더 사랑하는 이유도 바로 그 낭만성에 있음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랑을 시작했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미워하게 된다는, 인간이란 존재의 한없는 모순...

찾아볼것들

- 사랑후에 오는 것들
- 냉정과 열정 사이